

카드 News

우리카드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 1톤

우리카드가 취약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우리카드는 종로구 창신2동 독거노인 100가구에 김치 1톤(t)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이기수 우리카드 경영기획본부장, 남성현 창신2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우리카드는 창신2동과 지난 2018년 11월에 1사1동 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민족대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아 각각 음식료품 100박스를 기부했다.

현대카드
쿠킹 라이브러리 '선데이 팝업'

현대카드는 쿠킹 라이브러리에서 선데이 팝업(Sunday Pop-up)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팝업에는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김태성 셰프와 이하성 셰프가 다이닝을 선보인다. 예약은 현대카드 다이브 앱에서 가능하다.

오는 28일 아트 라이브러리에는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큐멘터리 '넌 골디, 모든 아름다움과 유희시대'를 상영한다.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셀 위 덴스' 전시를 선보인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순간을 사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2종 선보

KB국민카드가 프리미엄 카드인 '헤리티지' 라인업을 강화한다.

KB국민카드는 8일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2종을 새롭게 공개했다.

'헤리티지 클래식'은 실속 있는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겨냥해 출시했다. 국내외 전 가맹점과 생활 밀착영역 추가 할인과 적립을 제공한다. 취향에 따라 할인형과 스카이패스형으로 발급할 수 있다.

할인형은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1% 청구할인 혜택을 한도 없이 제공한다. ▲쇼핑 ▲생활 ▲교육 ▲건강의 생활 밀착 4개 영역에서는 이용금액의 0.2%를 추가 할인한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가맹점 결제금액 1500원당 1마일리를 적립한다. 이어 ▲쇼핑 ▲생활 ▲교육 ▲건강 등 생활 밀착 4개 영역과 ▲항공 ▲호텔 ▲골프 등 '플러스' 영역에서 추가 1마일리를 적립한다.

KB국민카드 차기 수장에 김재관 내정

'1등 카드사' 특명... 재무건전성 확보 과제

이달 중 최종 심사 통해 확정
경영관리 역량·실행력 뛰어나
연체율 관리·체질개선 급선무

차기 KB국민카드 대표에 김재관 KB금융지주 재무담당(CFO) 부사장이 낙점됐다. '1등 카드사'를 향한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과제는 디지털전환(DT)과 재무건전성 확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지난 6일 KB국민카드를 이끌 차기 수장으로 김재관 KB금융지주 CFO(부사장)를 내정했다. 김 부사장은 이달 중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심사와 추천을 통해 2년간의 임기가 확정된다. KB금융지주는 김 부사장 선임 배경으로 경영관리 역량과 실행력 등을 꼽았다.

김 부사장은 1968년생이다. 이 대표보다 세 살 젊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KB국민은행 양주테크노지점장과 기업상품부장을 거쳤다. 이후 ▲중소기업고객부장 ▲SME 기획부장 ▲기업금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내정자

융술루션본부장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와는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경영기획을 제외하면 두 인물은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이창권 사장은 KB금융지주에서 신사업부장과 전략기획상무, 전략총괄(CSO) 부사장 등을 수행했다. 조직 내에서는 전략에 잔뼈가 굵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한 이 사장은 디지털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KB페이'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반면 차기 수장으로 내정된 김 부사장은 그룹에서 재무를 총괄한 '재무통'이다. 재무건전성 확대에 고삐를 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무건전성 개선은 카드업계의 공통 과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장기적인 흐름에서 업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선제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 김재관 차기 사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연체율 해소가 숙제다. 지난 9월말 기준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29%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던 지난 3월(1.31)과 비교하면 0.02%포인트(p) 낮아졌다. 그렇지만 지난해 동기(1.22%)와 비교하면 0.07%p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1.03%) 대비 0.19%p 상승했다.

KB금융지주는 차기 사장 내정에 대해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통해 '1등 카드사'로의 도약을 끌어 낼 수 있는 경영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권 사장이 3년간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합격점'을 받은 만큼 김재관 차기 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이 사장은 지난 2022년 임기를 시작해 총 3년간 KB국민카드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새로운 신용카드

라인업인 '위시(WE:SH)'를 공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위시카드는 출시 2년여만에 발급 100만장을 돌파했다. ▲마이(My) 위시카드 ▲아워(Our) 위시카드 ▲위시올(All)카드 등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핀셋마케팅'을 통해 1인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활용할 수도록 설계했다.

쿠광와우카드 또한 이 사장의 괄목할 성과다. 출시 1년 만에 발급 100만장을 돌파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KB국민카드의 신규 회원수는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중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쿠광와우카드가 실적 견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어떤 인사든 전임자와 비교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표는 전임자의 사업과 본인만의 신사업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성과도 거둬야 하는 만큼 초기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강남 전통부촌에 역세권, 저렴한 분양가... 흥행 예고

부동산 현장 르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하이엔드 브랜드로 미래가치 ↑
59·84㎡ 등 실속형 설계 주목
계약금·대출제한, 자금계획 필수

올해 마지막 '로또청약'으로 꼽히는 서울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가 지난 6일 견본주택을 열었다. 지하철 방배역까지 걸어서 6~7분 안팎이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 명문 학군,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대거 쏠렸던 곳이다.

견본주택은 사전방문예약제로 운영하면서 크게 붐비지 않고 관람객들이 여유있게 돌아볼 수 있었다. 하루 400명씩 사흘간 1200명만 가능하다.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27층, 8개 동으로 총 707가구로 조성된다.

방배동 일대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비롯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현재 총 12개 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1만2000여 가구가 넘는 신축타운이 된다.

일반 분양 물량은 140가구로 많지 않다. ▲44㎡ 20가구 ▲59㎡ 73가구 ▲75㎡ A 16가구 ▲75㎡ B 17



'아크로 리츠카운티' 모형도(왼쪽)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신축공사 현장. /안상미 기자

가구 ▲84㎡D 12가구 ▲144㎡2가구 등이다.

경쟁률의 문제일 뿐 청약 흥행은 이미 예고됐다. 입지가 워낙 좋은 데다 규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400m 거리인 역세권이고, 1km 내에서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등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등 문화시설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까지 생활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다.

견본주택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59㎡와 84㎡D타입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유닛이 마련됐다. 특히 59㎡의 경우 4베이 관상형 구조며, 침실 3, 욕실 2에 드레스룸과 주방공간까지 공간 활용도가 높았다.

커뮤니티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 골프 등 운동 시설을 비롯해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등도 계획되어 있다. 다만 스카이라운지는 공공개방시설로 외부인에게도 개방된다.

규제 지역인 만큼 좋은 입지에도 분양가는 낮게 결정됐다.

아크로 리츠카운티 분양가는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44㎡ 14억 370만원 ▲59㎡ 16억 7630만원 ▲75㎡ 20억 6600만원 ▲84㎡ 21억 7120만원 ▲144㎡ 38억 4170만원 등이다.

인근에 신축으로는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전용 84㎡가 올해 10월 29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모두 30억원 이상이며, 최고 호가는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소 8억원 안팎의 시세차

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강남권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방배동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로 공급되는 만큼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 계획은 꼼꼼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 당첨과 함께 내야 하는 계약금이 20%로 84㎡가 4억원이 넘으며, 규제지역이라 중도금 대출이 50%까지만 가능해 나머지는 자납해야 한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이 걸려있다.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비고
갈현동새마을금고 본점리모델링 대수선공사	1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64 2공사내용: 57개층 대수선공사 및 EV 설치공사	공사 도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일반 경쟁입찰

2. 입찰의 장소와 일시

구분	공고일	입찰참가접수 마감일	입찰
일자	2024년 12월 09일	2024년 12월 13일 12:00	2024년 12월 26일 10:00
장소	신문	본점 1층	본점 2층 이사장실

* 모든 서류 접수는 우편접수 불가(따감 일시 준수)

3. 입찰참가자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된 영업소가(본사)가 서울, 경기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새마을금고 복지회에 등록된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새마을금고 점포 대수선 공사를 1건 이상 준공한 업체
라. 입찰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 부여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사신청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새마을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입찰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 운영지원팀 ☎ 02-358-0511, 박숙자 전무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12월 09일

갈현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인생략)